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Fax (510) 639-4842

thmschae@yahoo.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흔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106 회의실)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예레20, 7-9

[화답송] 시편63(62), 2, 3-4, 5-6, 8-9 (◎2-참조)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매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청년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제 2독서] 로마12, 1-2

[복음 환송] 에페1, 17-18참조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복음] 마태16, 21-27

성가	8시 미사	입당 58	봉헌 218 212	성체 180 198	파견 19
	11시 미사	입당 58	봉헌 218 212	성체 180 198	파견 19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22주일(8월 31일)		연중 제23주일(9월 7일)		성심자가현양축일(9월 14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스텔라(애리)	황테레사(혜정)	김안토니오(휘)	권미카엘(창모)	이바로로(명국)	이엘리사벳(자영)
제 1 독서	정프란치스코(일환)	정요한(석준)	이바로로(명국)	구미카엘(창희)	강요한(신호)	최다니엘(대연)
제 2 독서	정글라라(영희)	손리디아(정옥)	정스텔라(애리)	이베로니카(경란)	김안젤라(영선)	이골롬바(정연)

오늘의 말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교황님 방문 기간에 시복되신 124위 한국 순교자들은 공경 받아야 마땅하다.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십자가의 힘을 믿으라.’ 는 교황님의 말씀대로 박해의 칼날 아래 목숨까지 내던지며 보다 소중한 가치를 위해 깨끗하게 믿음 안에 머무신 분들이다.

예나 지금이나 크고 작은 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 본당 사목시절, 사순 시기에 신자들 각자의 기도지향을 종이에 적어 함께 기도하고 제대에 마련된 사순 십자가에 붙이면서 부활 준비를 한 적이 있다.

참으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사제인 나로서도 해외생활을 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고 영적, 정신적으로 메말라가는 순간들이 있었다. 소위 ‘냉담 사제로 이끄는 순간’ 이라고나 할까.

그럴 때면 어느 연로하신 신부님께서 들려주셨던 ‘십자가 바라보기’ 를 행하며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해보고 책상 앞에 붙여놓은 유학 선배사제이신 성 김대건 신부님의 상본을 쳐다보며 지혜로이 인내심을 지녀보기로 기도하곤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역시 젊으셨을 때 심각한 폐렴으로 폐를 절제하여 어느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극심한 고통을 체험하셨다고 한다. 그러던 중, ‘넌 지금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야!’ 라는 어느 수녀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생각에 다시금 평화를 얻고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셨다고 한다(참조: 차동엽 저, 교황의 10가지).

2014년 병자의 날 담화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고통을 몸소 짊어지심으로써 더 이상 최종 선고가 아닌 풍요로운 새 삶이라는 의미를 갖게 해 주셨다.’ 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길이다. 영화 ‘명량’ 에서 이순신 장군의 대사처럼 ‘죽어야 살 수 있는 길’

이다. 쉬운 길은 아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십자가를 지고.

잘 사는 길, 가치 있는 삶은 단지 세속적인 매력에만 빠져 살아가는 길이 아닌, 하느님을 위한 선택 안에서 자기만을 위한 가치를 버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철저한 결단과 헌신이 요구된다.

하루하루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고통에 용감히 맞서 살아가도록 초대하신다. 경제논리에 의하면 밀지는 길처럼 보이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십자가(+)를 짊어진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플러스(+)’ 로 만들어주실 것이다.

이춘택 야고보 신부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말씀 예찬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은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납니다. 사랑은 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말씀은 영혼의 밥이자 약입니다. 제가 고백성사 때 자주 주는 보속이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고백자들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성경 구절을 써주고 매일 마음에 담고 생활하라 합니다. 대부분 처방에 따라 충실히 ‘말씀 약’을 복용한 후 그 효능에 대해 감사하기도 하고, 수년 동안 말씀의 처방전을 지갑에 간직했다 보여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은 ‘사랑’입니다. 말씀은 하느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말씀 속에 녹아 있습니다. 말씀이 사랑을 복돋워 주고 성소를 굳건히 해 줍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 말씀은 그의 성소의 원동력을 깨닫습니다. 그가 얼마나 뜨겁게 하느님을, 그분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알게 됩니다.

“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뺏속에 가두어 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 내지 못하겠습니다.” (예레 20,9)

하느님은, 그분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운명이자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아니 예레미야뿐 아니라 하느님을 찾는 모든 이들 안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하느님사랑,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은총’입니다. 말씀의 은총이 우리를 위로하고 자유합니다. 우리를 정화하고 성화합니다. 진정한 내적변화와 분별력의 은총도 말씀 수행의 열매입니다.

바오로의 권고 말씀이 적절합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로마12,2)

끊임없는 말씀 수행이 있어 바오로의 권고 말씀도 실현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성화합니다. 말씀의 은총은 주님을 닮는 내적 변화요, 하느님의 뜻을 알아내는 분별력입니다.

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내적 힘이요, 내면의 빛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은 물론, 믿는 우리 모두에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태 16,24)

이 말씀대로 살 때 순교적 삶입니다. 사람이 되는 구원의 길이자 생명의 길은 이 말씀 하나뿐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니 제 십자가의 짐을 덜어 달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향구한 말씀 수행을 통해 이런 내적 힘을 선사 받습니다.

말씀은 사랑이요 은총이요 힘입니다. 말씀은 내 발에 등불, 내 앞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말씀을 예찬하기로 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느님을 진정 사랑하는 이는 말씀을 사랑하여 평생 ‘말씀의 수행자’로 삽니다. 아멘.

이수철 신부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말씀의 향기

믿음, 아이 같아야

7살 아이가 5살 동생을 돌보고 있었다.
동생이 배가 아프다고 칭얼거렸다.
형은 동생을 무릎 베어 눕히고는 엄마처럼 했다.
형아손은 약손 니배는 똥배.
엄마손이 약손이야. 형아손은 아니잖아.
동생이 형아손을 밀치며 울어댔다.

할 수 없다.
유일한 약인 아까징끼를 찾아서 발라주었다.
동생은 고개를 들어 벌겍게 된 제 배를 보고는 “정말 낫는 거야?” 하고 울먹였다.
“아주 좋은 약이니까, 좀만 기다리면 낫는다.” 고 달래며 입으로 동생의 배를 후후 불어 말리고는, 타올로 덮어주자,
“형아, 안 아플라칸다.” 하더니 금방 잠이 들어버렸다.

복음서 여러 대목에서 아이 같아야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워즈워스도 이 말씀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이 뛰노라에서)라고 썼을까요. 성경에서 존 버니언은 「천로역정」의 아이디어를, 천로역정에서 괴테는 「파우스트」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평생 발달심리학을 강의해 온 아동학 교수로서 반성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이 같을 수 있는가?’ 아릿적은 인간 특성의 기초형성시기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는 발달의 기본특성을 단적으로 대변합니다. 영어가 서툴러 고생하던 유학시절, 저도 우리 민속의 이런 속담 격언을 인용하여 겨우 점수를 얻었습니다.

위의 소품은 자원봉사 나오신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 시절 그 원시 시대(?)의 시골 마을이 떠올라서 쓰게 되었습니다. 방송화면에서 아프리카 어린이 후원광고를 보면, 바로 내 아릿적의 시골모습이었으니까요.

집안에 약이라곤 없었고, 아이한테 더 어린 아기를 맡기고 어른들은 다 일을 나갔습니다. 부모님이 해 저물어서야 집에 돌아오실 동안, 큰애는 동생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아까징끼’ 라는 빨간 약은 두통에는 이마에, 치통에는 두 뺨에, 벌레 물린데, 굶아터진 현대, 허리 아픈데 등 만병통치약이었으니까요.

동생은 무지몽매한 형이 배에 발라주는 붉은색을 보고 복

통이 그치는 걸 느끼고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어른들 특히 고학력자들은 기겁할 처방이지만, 무지한 아이, 순진무구한 어린이는 철석같이 믿었고, 복통은 치료되었을 뿐 아니라 편하게 낮잠까지 잘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까징끼 약효를 믿어 실제로 약발을 받듯이, 주님 말씀도 아이처럼 믿어야 믿음발을 받는데 말입니다. 주님 말씀은 아무리 읽고 들어도 의심과 믿음 사이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동전의 양면인지 알 수 없을때 주님 말씀대로 아이가 되지도, 닮지도 못해 괴롭습니다.

유안진 글라라 시인, 서울대명예교수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글_마르 7:8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가톨릭전례

주님의 기도-일곱가지 청원(2)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명언이지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엄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는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분께 의탁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의 이 구절은 끊임없이 하느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본 모습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이 청원 기도는 우리에게 이웃과의 관계도 생각하게 해 줍니다. 또한 이 청원은 사람들이 겪는 또 다른 굶주림에도 해당됩니다.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태 #4:4). 곧,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숨결(성령)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노력을 다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땅 위에서는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아모 #8:11) (가톨릭교회교리서 #2835항).-

2)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핵심이 용서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무자비한 종의 비유, 탕자의 비유 등).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죄인들과의 만남, 십자가에서의 용서 등). 용서는 영혼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청원하듯이, 하느님의 용서를 청원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청원기도가 우리를 하느님과 연결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도 연결시켜 주듯이, 용서를 위한 청원기도 역시 우리를 이웃과 결합시켜 줍니다.

-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의 형제자매를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 마음은 다시 닫히고 굳어져서,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이 스며들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리게 된다(가톨릭교회교리서 #2840항).-

3)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청원기도 역시 인간의 한계를 깊이 인정할 때 오히려 바칠 수 있습니다. 의지력이 약한 사람보다는 오만한 사람이 더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의지력이 약한 사람은 술 한 잔의 유혹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오만한 사람은 자기가 잘 사는 줄 알고 으쓱대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심각합니다.

4)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는 이 마지막 청원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악의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도 체험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바치는 믿음과 희망의 기도인 것입니다.

- 우리는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또한 악의 세력이 주도하거나 선동하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 마지막 청원에서 교회는 세상의 모든 괴로움에 대하여 아버지께 호소한다. 인류를 짓누르는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비는 교회는 평화의 귀중한 선물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깨끗한 인내의 은총을 간청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2854항).-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
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야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8월 31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이마리아(정재)	가족
	연 이카타리나(영순)	가족
	연 이카타리나(영순)	한안젤라
	연 이카타리나(영순)	이로사리아(정숙)
	연 이카타리나(영순)	황아네스(현숙)
	연 우마리아(춘)	조요안나
	연 정바오로(성현)	자녀
	연 정요셉/서데레사	정베드로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부모님	정베드로/아가다
	연 유재현/홍성용	유비비안나(주희)
	생 방바오로(효익)신부님	김데레사
	생 윤사비나(순의)	찬미성가대
	생 제시카페리 생일	김엘리사벳
	생 전데레사(숙희)	익명
	생 조베드로(찬구)	조데레사
생 조야고보	조데레사	
생 차루시아(아름)	차리디아(영화)	
생 채토마스(성일)	김안토니오(휘)	
생 이헬레나(지흔)	이야고보/카타리나	
9월 2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김요한/홍모니카	정분다
	연 이마리아(정재)	정분다
9월 4일 목	연 본당선종연령	선종봉사회
	연 이마리아(정재)	가족
	생 김에드워드(지성)	김엘리사벳
	생 김그레고리오(준효)	전수산나
	생 이정우	전수산나
9월 5일 금	생 유리디아(윤미) 생일	전수산나
9월 6일 토	연 이마리아(수영)	김바오로/엘리사벳
	생 레지오단원들 건강	꾸리아
	생 서데레사 건강	향심기도회
	생 허마리아 축일	김카타리나
	생 김바오로/최아네스	김바오로/엘리사벳
	생 이스테파노/정도미니카	김바오로/엘리사벳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72	175	-	247
헌 금	\$471	\$1,770	-	\$2,241

< 교무금 > \$2,370

최은용(5-8) 김현수(7-8) 허은석(7-8) 이정연(9)
강신호(7-8) 조승구(8-9) 변귀태(8) 최윤기(7)
박일신(6-8) 차영화(8) 허동원(8)

< 성소후원금 > \$100

허은석(7-8) 최윤기(7) 박일신(6-8)

< Bishop's Appeal > \$1,220

천종욱(1-12) 변귀태(8-12) 최윤기(7-12)
채성일(1-12) 주봉진(1-12) 차영화(1-12)

< 감사헌금 >

이명재/임경민 \$200 이육상 \$300

* 이주황 요한 형제님 가정에서 선종봉사회에 \$200 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오늘 간식은 조마리아/장루시아 가정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 성시간 : 9월 4일(목) 저녁 7시 30분
- ◆ 환자봉성체 : 9월 5일(금)
- ◆ 성모신심미사 : 9월 6일(토) 아침 7시 30분  
- 꾸리아 월례회
- ◆ 지속적인 성체조배  
9월 5일(금) 저녁 9시 ~ 9월 6일(토) 아침 7시
- ◆ 추석 합동 위령미사 : 9월 7일(다음주) 교중미사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사봉헌을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 사무실
- ◆ 2차 헌금 안내  
9월 7일(다음주) : Diocesan Priest Retirement
- ◆ 약정하신 2014년 Bishops Appeal 을 8월말까지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대건산악회 : 매주 화요일/문의 : 510-847-3014
- ◆ 방효익 신부님 여름 특강  
일시 : 8월 31일(오늘) 오후 1시 - 3시 15분  
주제 : 공동체와 신앙생활  
준비물 : 성경  
문의사항 : 영성부장 707-696-7743  
\* 참가비는 무료이며 점심이 제공됩니다.
- ◆ 오클랜드 성당 창세기 수료자 재교육  
일시 :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반  
대상 : 창세기 그룹공부를 수료하신 모든 분  
강사 : 조마오로 수녀  
장소 : 대건회관  
준비물 : 성경, 창세기노트, 해설서, 필기도구  
문의 및 등록 : 사무실

| 8월 구역모임 |             | 고린도전서 11-12장 |  |
|---------|-------------|--------------|--|
| 6 구역    | 9월 6일(토) 1시 | Tillman Park |  |

- ◆ 성장세미나(북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주제 :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1베드로 4:10)  
강사 : 한연홍 다니엘신부 (천주교 수원 교구)  
일시 : 10월 17일(금) 오후 4시 - 10월 19일(일) 오후4시  
장소 : The Jesuit Retreat Center, Lost Altos  
참가비 : \$260  
신청 : 각 본당 성령기도회 510-684-7207
  - ◆ 북가주 성령대회 강의 CD 및 책 예약 판매  
접수 : 친교실  
강의 CD : \$10(CD 3장)  
책 : ‘천금 말씨’ 와 ‘따봉 프란치스코, 교황의 10가지’  
(차동엽 지음) 각 \$20  
\* 수익금 전액은 본당 발전을 위하여 쓰입니다.
  - ◆ 주일학교 등록 안내  
개강 : 9월 14일  
등록비 : 1인 \$30, 2인 \$50  
접수 : 친교실
  - ◆ 성물방 봉사자를 구합니다.  
문의 : 김명환 안드레아 925-262-7094
-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 베레나(9/1) : 지성연
  - \* 그레고리오(9/3) : 양천중, 최은용

| 안국학교 소식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월 6일 : 개강식 및 추석행사</li> <li>- 9월 13일 : 교사연수</li> <li>- 9월 27일 : 교내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대회</li> <li>*등록비 \$300/1년(교재, 행사참가비, 특별활동비 포함)</li> </ul> |